

풍암호수 '895t 지하수개발' 허가코앞...주민 의견은 아직

광주서구, 풍암호 매일 895t지하수 유입 허가 검토 '기존 수질 개선안 검토' 주민협의체 지난달 출범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공사 착착...취지 흐리는 것" 서구 "지하수 개발 심사 통과해 행정절차 밟아야"

광주 서구가 기존 풍암호수 수질개선 TF안대로 지하수 개발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반면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출범한 주민협의체는 수질 개선 본 논의의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다. 18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서구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이 제출한 풍암호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풍암호수 지하수 개발안은 호수 주변 5개 지역 내 8개 구명에서 매일 895t의 지하수 물을 퍼올려 수질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이 안은 지난 2019년 풍암호수공원 공무원·민간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수질개선 TF안에서 제시한 방안이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은 지난해 11월 21일 서구에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신청을 했다. 관할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지하수 영향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풍암호수 반경 500m이내의 지하수 고갈과 수질 이상 여부를 검토했다. 이후 지난 11월 '적정하다'는 의견을 서구에 통보했다. 풍암호수 공구 500m 주변엔 매일 지하수 2000t이 고이는데 이 중 67%에 이르는 1300t까지는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오는 25일 안으로 지하수 개발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서구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은 주민협의

체의 의견과 별개로 기존 TF안대로 공사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광주시·서구는 지난 7월 수질개선 TF안을 설명하는 첫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 이후 수질 개선안을 두고 '원형보존' 등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시는 반발이 잇따르자, 지난달 7개동 35명 주민과 공무원, 시·구 의원 등 총 48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렸다. 주민협의체는 지난주 2차 회의를 마쳤으며, 현재 운영단 구성과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질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과 대안 모색 절차는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다. 민태홍 주민협의체 회장은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TF안을 검토해야 하는데, 의견 수렴 없이 기존 안대로 공사를 착착 진행하는 것은 협의체 구성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서구는 지하수 개발 적정 통보에 따라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구 관계자는 "당초 TF회의 때 수질개선 위주로 논의가 이뤄져 주민과의 소통은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주민, 광주시·전문가



와 함께 주민 협의체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 "이와 별개로 심사 결과가 문제가 없는데 행정 절차를 밟지 않으면 지하수 개발 허가 절차를 밟지 않으면 민간 사업체와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절차 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은 서구 금호·풍암·화정동 일대 중앙공원 1지구 부지에 공원시설 224만 59㎡·비공원시설 19만 5457㎡를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원엔 풍암호수를 비롯한 8개 테마별 친수 공간이 들어선다.

김재환 기자

전남도, 지식정보문화산업 기업 유치 본격 나서

지원규정 정비...연평균 30개 유치로 청년일자리 창출키로



전남도는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성장동력인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등 지식정보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 유치를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 정비로 연평균 30여 개의 지식정보문화기업을 유치해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민선7기 시범사업으로 추진했

던 '전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사업 세부사항이 담긴 시행지침을 전부 개정해 지식정보문화기업 신규 투자 유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행지침 전부개정을 통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보조금 지원 기준이다. 기존에는 창업·이전·지사기업과 도내 기업을 나눠 보조금 지원 기준을 다르게 적용했으나 전

부개정을 통해 전남도와 투자협약을 한 도내 지식정보문화법인으로 협약 이후 상시 고용 인원을 최소 3인 이상 채용하면 모두 동일한 보조금 지원 기준이 적용된다. 신규 고용인원 3~23인 기준 1억 원에서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며, 보조금 개시 신고일로부터 1년 후 3년 동안 분할 지급한다. 또 근무 인원의 도내거주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도 주민등록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로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였다. 시행지침 시행에 앞서 전남도가 시군 담당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7일 개최한 설명회에 지식정보문화 분야에 종사하는 약 50여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김대인 전남도 투자유치과장은 "지식정보문화기업 투자유치가 극대화되도록 지원 정책을 지속 홍보하고 협약기업이 투자를 실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민선7기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식정보문화산업 분야에 보조금을 신설해 총 141개의 기업과 투자협약을 했으며 76개 기업이 투자를 실현해 1천9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지난해 항공교통량 하루 평균 1479대 전년 비해 16% ↑ ..."하늘길 본격 회복세"

지난해 국내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54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항공교통량 집계 결과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 46만5469편 보다 16% 증가한 53만9000여대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일평균 1479편의 항공기가 운행됐다. 지난해 중 하늘길이 가장 붐비는 달은 11월로 하루평균 1709대로 기록됐으며, 가장 바쁜 날은 12월8일로 1843대가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교통량은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최저를 기록한 후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해오다가 국내·외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지난해 6월 이후부터 전년 대비 36% 여객이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국제선 활성화를 재개하면서 기존 동남아와 미주 중심으로 열린 해외길이 일본까지 확대되면서 해외여행의 심리 회복이 국제선 항공교통량의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국내선은 지방소규모 공항의 교통량 감소에도 제주와 김포공항의 교통량이 각각 6.8%와 4.5% 상승하면서 지난 199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교통량을 기록했다. 정부가 국제선 활성화를 재개한 6월 이후 국내 입출국 항공기 약 45%가 동남아와 남중국 방면 항공로를 이용해 가장 바쁜 하늘길로 집계됐다. 이슬비 기자

전남도, 한우가격 안정대책 선제 추진...현안 정부 건의

전남도가 한우가격 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에 현안 관련 지원 대책을 적극 건의했다. 전남도는 침체된 한우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료 구매자금 무이자 지원 등 농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에 경영안정 대책을 전국 최초로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전남도는 한우가격 하락이 예상되자 지난해 12월부터 농가의 흉수 출하 자제 독려를 시작으로 한우산업 안정대책 수립, 농·축협장과 유통업체·관계기관 간담회, 학교·기업

단체급식 한우고기 사용 확대 협조 등 자체적으로 가격 안정대책을 추진했다. 올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료구매자금 무이자 지원 24억원 등 한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신규·기존사업을 확대해 27개 사업에 175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한우가격 안정대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한우고기 군납 확대, 비축사업, 수입 쇠고기의 한우고기 대체공급 시 차액 지원 등 수급 조절 사업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기 시행토록 요구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한국어문진흥재단
Korea Prof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해를 넘어서 재민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보험료부담액	급여액	비율
5분위 고소득층	240,833원	125,531원	1.1배
4분위	125,531원	79,147원	1.7배
3분위	79,147원	48,103원	2.1배
2분위	48,103원	26,697원	2.7배
1분위 저소득층	26,697원	-	5.3배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총량 129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